

거리의 사물들

우리는 도로 위에서 수많은 표지판을 지나치지만 정작 그것에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운전자나 보행자로서 표지판이 알아보기 어렵다며 불평은 할지 몰라도 그 미감을 눈치챈 적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그러다 간혹 시골 고즈넉한 마을이나 산을 넘어가는 한적한 도로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금속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자연과 오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놀라기도 한다. 이렇듯 은근히 시선을 사로잡는 표지판 그래픽의 매력을 발견한 한 디자이너는 그것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보리스 볼리Boris Bally는 교통 표지판의 물성과 그래픽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대담한 아름다움을 갖춘 가구로 만들었다. 거리의 표지판을 해체해 유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신시키는 그는 자신의 가구를 <휴매뉴팩처드humanufactured>라고 부른다. 'human'과 'manufacture'를 합성한 단어로 전부 손으로 직접 한다는 뜻이다. 그는 작업을 할 때 가공부터 마감까지 모든 것을 손으로 한다.

보리스 볼리는 표지판을 미국 원주민이 들소를 다루는 것처럼 남김없이 해체해서 모두 사용한다. 조각조각을 내서 어떤 것은 의자 등받이로, 어떤 것은 의자 시트로 활용한다. 표지판을 자를 때는 그래픽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는 물론이고 재료를 남기지 않는데 신경을 쓴다. 자투리 재료라도 남을 때에는 컵 받침이나 쟁반 따위를 만들어 최대한 활용한다.

우연한 기회로 표지판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는 그는, 여러 교육 과정과 도제 경력을 거치고 비로소 피



3 Transit Chairs
- by Boris Bally

등받이가 긴 의자는 모던한 선과
과감한 그래픽으로 시선을 끈다.



3 Transit Tables
- by Boris Bally

세 개의 작은 테이블

츠버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1980년대 초기에, 보스턴 갤러리에서 벽난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벽난로를 만드는 데 필요해서 오래된 거리 표지판에 망치질을 하던 중 표지판의 그래픽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그 매혹적인 그래픽에 사로잡힌 그는 표지판을 이용해 접시를 만들었고 그 후 표지판은 테이블이 되고 의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가구들은 평단과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가구를 만들기에 최적의 표지판을 고르고 사들이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주와 계약을 맺고 폐기될 표지판을 사들인다. 디자인을 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충분한 재료를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수백 개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같은 재료를 엄청나게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일주일에 5일을 재활용할 재료를 찾는 데 할애한다. 재활용 제품은 조악하다거나 가구로서 편안하지 않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기에 1년에 수백 개의 안락의자를 만들어내면서 매립지에 묻힐 뻔한 20톤의 알루미늄을 활용한다.

그의 가구가 갖는 특별함은 아무래도 주 재료인 표지판의 그래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엄중하고 단순한 단어들과 그림, 보색 대비가 확실한 선명한 색



BroadWay Armchair

- by Boris Bally

표지판의 방향 표시를
위트 있게 표현했다. 이
의자에 앉은 디자이너도
유쾌해 보인다.



상들이 가구에 들어오면 위트와 재기발랄함으로 살아난다. 같은 그래픽이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놓느냐에 따라 느낌은 완전히 달라진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표지판이다 보니 총알 구멍이 있는 등 표지판에 다양한 사연이 있다는 점이다. 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도 디자이너는 표지판의 일부, 디자인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대로 사용한다.

현재 장르와 기술, 재료의 교배를 탐험하는 보리스 볼리의 목표는 디자인과 예술, 공예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즐거워서는 아니고 친환경적이라 더욱 좋다”라고 말한다.

건물처럼 표지판도 그 도시와 나라의 인상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는 길거리의 표지판은 사실은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며 도시의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어떤 문구가 어떤 서체로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는 그 도시의 표정과 가치관을 표현한다. 다른 나라를 방문해 새로운 도시 풍경 속에 있을 때 유난히 낯선 기분이 드는 데에는 거리 곳곳에 놓인 낯선 표지판과 이정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보리스 볼리는 미국의 표지판을 사용한다. 그런 그의 가구들을 사람들은 ‘미국 거리의 미학’이라고 부른다.